

大學生の 學業成就와 諸 情意的 變因과의 相關研究

韓 宗 哲* · 李 學 柱

教 養 課 程 部

(1980. 11. 17 접수)

〈요 약〉

教育은 人間 行動을 變化시키는 一連의 組織的 過程이다. 따라서 教育의 過程을 通하여 變化된 知的 行動과 여러 情意的 要因과의 關係를 分析的으로 評價하는 일은 教育 專門家에 주어진 重要 課題中的 하나다.

本 研究에서는 1)教育課程의 中核의 目標인 大學生들의 學業成就도와 情意的 側面인 自我概念 및 知覺向性과의 關係 把握과 2)大學에서의 한 教科의 學業成就도와 總 學點 平均點數(Grade Point Average)와의 相關關係를 分析하였다.

本 研究 結果에 의하면, 學生들의 한 教科에 대한 學業成就도와 이들의 自我概念 및 知覺向性 要因과의 相關關係는 統計的으로 意義가 없었다. 即 學生들의 自我概念이나 知覺向性은 이들의 學業成就도를 거의 豫言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女子 集團의 경우 學業成就도와 知覺向性的의 下位要因인 '自身에 대한 知覺'問에 統計的으로 매우 意義있는(1%수준)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어, 學業成就도에 미치는 情意的 變因에 있어 男 · 女 學生集團 問에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大學의 總 學點 平均點數는 한 教科에 대한 成就度 變量의 約 62%만을 豫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大學에 있어 學生들의 各 教科에 대한 學點의 可變性을 말해 주는 것으로, 大學生들의 한 教科에 대한 學業成就도에는 他 教科에 대한 知的 能力(知識) 以外的 다른 情意的 要因이 크게 影響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Affective Traits of College Students

Jong-Chul Han*, Hak-Joo Lee

Dept. of Basic Studies

(Received November 17, 1980)

〈Abstract〉

It is one of the most well-recognized facts that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practices is closely tied with the possibility of innovation in educational evaluation itself and the evaluation of improvements in student abi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s in education.

The first major problem for the future of education is to find ways and means of multiplying the measurable dimensions of academic achievement. Though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measure student achievement, to diagnose learning difficulties and to verify affecting variables of student achievement, they have not been as fruitful as one might exp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academic achievement, representing a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and higher mental abilities, is measured by affective traits.

Purposes of the study

Two major purposes were identified for the present study,

* 江原大學校 師範大學 教授, 教育學

1) To ver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core of achievement test and self-concept, perceptual orientation.

2) To ver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core of achievement test and the grade point average (G.P.A.) at the college.

Methods

Among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an achievement test, standardized "Self Concept Inventory" and "Perceptual Orientation Scale" were used by the research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0 students enrolled in "School and Community" courses of Yonsei University during the first academic semester, 1979.

The procedures are as follows: the collecting of data on the achievement and psychological tests, and the treatment of the data by analysing them according to simple correlation,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s.

Major findings

1) The variables on the self concept and perceptual orientation were not related with the achievement test. But, the perception of other person as a sub-factor of "Perceptual Orientation Scale" prov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females(1% level).

2) Generally, correlation between the score on the achievement test and the G.P.A. was low (.62). But correlation between the G.P.A.'s of freshmen and sophomores was high(1% level).

I. 緒 論

오늘날 論議되고 있는 教育發展의 問題는 教育實際의 改善與否와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教育實際의 改善은 教育의 結果로 나타나는 重要한 側面인 知的 能力의 啓發方案을 얼마나 改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특히 모든 分野에서 專門的 知識이 漸次로 增加되고 있는 現代社會에서 學生들로 하여금 急激한 社會變化에 適應한 수 있도록 하기 爲해서는 大學教育은 高度의 專門的 知識과 高次的인 知的 能力의 啓發에 그 強調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大學에서 專門的 知識과 知的 能力의 結果로서 表示되는 大學生들의 學業成就度에 영향을 미치는 몇가지 心理的 特性要因을 밝히려는 必要性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點에서 本論文은 大學에서 한 特定敎科 科目에 對한 學生들의 學業成就度와 同一한 種類의 學業成就度인 이들의 大學教育에서 履修하였던 總 學業平均(Grade Point Average)과의 相關關係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들 學業成就度와 學生들의 心理

的 變因인 自我概念 및 知覺向性과의 關係를 究明하였다.

本章에서는 먼저 問題의 提起로서 大學에서의 學業成就度의 重要性에 對하여 考察하였으며, 다음으로는 自我概念 및 知覺向性에 대한 理論的 根據를 살펴 보았고, 마지막으로 本論文의 目的을 記述하였다.

1. 問題의 提起

現代社會의 繼續的인 自體更新은 그 社會를 構成하고 있는 各 個人의 自己更新이 없이는 不可能하며, 各 個人의 自己更新은 教育을 通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Nevitt Sanford의 말처럼 "教育이 文化에 依存하고 있는것 처럼 文化는 教育에 依存하고 있으며, 따라서 繼續的인 發展을 必要로 하는 文化의 向上은 大우 發達된 個人들에 依해서만이 이루어 질 수 있다"⁽¹⁾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教育에 依하여 社會의 全般的인 發展을 圖謀하고 個人的으로는 社會의 上昇을 追求하는 것은 그 社會의 要求이며, 또한 個人의 成就動機인 것이다.

(1) N. Sanford, "The Contribution of Higher Education to the Life of Society" in *Higher Education: Demand and Response*, W. R. Niblett(ed.), (London: Taristock Publishers, 1969), pp.11-12.

특히 科學技術의 急進의이고 繼續의인 發達로 各 專攻分野의 새로운 知識이 爆發의으로 增加하고 있는 現代社會가 高度의 産業社會에로의 持續的인 發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專門의 知識을 가진 高級 人力資源이 더욱 必要하게 되었다. 따라서 大學에 對한 이러한 社會의 要求는 오늘 날의 一般의이고도 當然한 주세인 것이다.

이에따라 現代의 大學教育의 目的은 教授活動을 通하여 專攻領域에 關한 專門의 知識의 理解를 넓혀주고 앞으로의 繼續的인 學問의 研究活動을 願하는 學生들을 教育시키으로써 個人的 資質을 啓發하여 바람직한 個人的 發達을 圖謀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는 水準의 教育을 莫論하고 教育의 窮極的인 目的은 必要한 知識의 獲得과 바람직한 態度的 形成에 있다. 大學은 이러한 教育의 本質的 目標을 遂行하고자 制度化된 組織體이므로, 大學의 모든 附帶的인 機能이나 目標들도 學生들에게 學問分野의 專門의 知識을 傳達하는 本質的인 機能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効果的으로 遂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大學이 遂行하여야 할 가장 重要한 課題中의 하나는 學生들의 創造的 能力을 發展시키기 위하여 知的 領域의 向上된 學習經驗을 갖는 일이며, 그 結果를 確認하는 일이다. 특히 學問의 卓越性을 重視하는 大學社會에서 學生들의 知的 領域의 教育의 成就度에 強調點을 두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大學의 機能과 目標에 對하여 John Gardner는 “大學이 갖고있는 機能中 가장 重視되어야 할 것은 教授의 機能이다. 研究의 機能이나 社會奉仕의 機能도 重要하지만 이들 機能은 教授의 機能에 貢獻할 때 비로소 重視되는 것이다.”⁽²⁾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C.R. Pace는 “大學의 學習目標에서 學問의 卓越性이 第一次的인 目標가 되어야 하므로 教育의 成果의 目標는 學生들의 反應에 對한 知的 側面과 그 學問의 知識에 強調點을 두어야 한다.”⁽³⁾고主張하고 있다. 이는 大學教育에서 教授-學習活動을 通하여 얻어지는 學生들의 知的 領域의 學業成就度에

對한 重要性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大學의 選拔過程이나 卒業査定에서 뿐만아니라 一般社會에서 學生들의 學業成就度를 가장 重要한 하나의 判斷基準의 準據로 보는 理由는 그것이 大學教育의 履修過程과 卒業後의 社會의 適應過程에서 모든 知的 領域의 活動에 對한 豫言的 價値가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大學生들의 學業成就度는 學生들을 理解하는데 基本的인 要因으로서 大學에서의 모든 教育의 成就度를 評價하는 가장 妥當한 基準이며, 또한 全般的인 教育의 効率性을 判斷하는 第一次的인 準據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學生들의 學業成就度는 大學의 모든 教育課程의 가장 重要한 中核的인 目標이며, 知的 能力으로 나타날 수 있는 具體的이며 測定할 수 있는 學生들의 行動變化인 것이다. 大學에 있어서 學生들의 學業成就度에 對하여 A.S. Barr 등은 75個의 博士學位 論文을 分析, 綜合하면서 “學校教育에서 모든 다른 變因의 妥當性을 檢證하기 爲한 第一次的인 準據로서는 學生들의 學業成就度를 보아야 한다.”⁽⁴⁾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學業成就度를 단지 學習의 成果가 累積된 單純한 結果가 아니라 이러한 結果를 가져오는 過程이나 혹은 作用으로 본다면, 學生들의 學業成就度는 知的 領域의 能力 以外의 많은 變因의 影響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D. Baron과 H.W. Bernard가 “學業成就度란 學習을 위한 適性, 學習을 위한 準備性 그리고 學習을 위한 機會의 서가자 要因의 相互作用”⁽⁵⁾으로 定義하는 것은 마땅 學習된 結果를 가져오는 過程 혹은 作用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即 이는 단지 累積된 結果로서 學業成就度를 본 것이 아니라, 이러한 結果를 가져오는 한 全體的인 教育의 過程에서 나타난 結果로 보아야 할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大學에서 모든 教育의 努力의 直接的인 結果이며 또한 모든 教育的 活動의 効率性을 判斷하는 가장 重要한 準據인 大學生들의 學業成就度와 情意的 變因인 自我概念 및 知識向性과의 關係를 究明할 必要性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2) R. I. Miller, *Evaluating Faculty Performanc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4), p. 22에서 再引用
 (3) C. R. Pace, “Perspectives and Practicalities.” in *Evaluating Learning and Teaching*, C. R. Pace(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3), p. 99.
 (4) J. W. Trent & A. M. Cohen, “Research on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in *Secon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R. M. W. Travers(ed.), (Chicago: Rand McNally & Company, 1973), p. 1049에서 再引用
 (5) D. Baron & H. W. Bernard, *Evaluation Techniques for Classroom Teachers*(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Inc., 1958), p. 89.

2. 自我概念 및 知覺向性

自我概念(Self-Concept)을 規定하는 定義는 學者들마다 다르며, 그 意味 또한 多少의 差異가 있으나 現代 心理學에서 使用하고 있는 自我概念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 한 個人이 그 自身에 關하여 가지고 있는 態度의 느낌의 集合體로서 보려는 경우이며,

둘째, 人間行動의 決定因子로서 사용하는 心理的 過程의 한 集團이라고 보는 경우인데⁽⁶⁾, 前者는 個人이 知覺하고 있는 自己 自身에 대한 事實의 規定이며, 後者는 個人이 到達하려고 하는 信念體制이라고 하겠다.

W. James는 自我를 分析하여 “한 個人의 身體와 精神의 能力 뿐만 아니라 그의 家庭, 衣服, 婦人, 어린이, 名聲, 業績 등 ‘그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全體”⁽⁷⁾라고 하면서 이같은 自我의 構成要素를 物質的인 自我, 社會的인 自我, 精神의인 自我, 純粹 에고(pure ego) 등 4가지로 分類하였다.

V. C. Raimy는 “自我概念이란 現在 및 過去의 自我觀察의 結果 일어난 어느 정도 組織된 知覺의 對象이며, 그것은 個人이 自己 自身에 대해 무엇인 가라고 믿는 바”⁽⁸⁾라고 하였으며, C. R. Rogers는 自我概念 또는 自我構造를 “個人的 意識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容認된 自我知覺의 組織된 形態”⁽⁹⁾라고 定義하면서 그 構成要素로서 自身の 性格·能力에 關한 知覺, 他人이나 環境과 關聯을 맺고 있는 自身에 대한 知覺, 經驗이나 어떤 對象物과 關聯지어 知覺한 價値의 質, 그리고 肯定的 또는 否定的 價値를 띠고 있는 것으로 知覺된 目標나 理想을 指摘하고 있다.

또한, F. J. McDonald는 “한 役割에서 다른 役割로 移行하는데 따르는 統合的인 個體로서의 한 個人의 概念이 바로 그의 自我概念”⁽¹⁰⁾이라고 規定하고 있으며, W. W. Purkey는 “自我란 한 個人이

自己 自身에 대하여 갖고 있는 信念, 態度, 意見의 集合體”⁽¹¹⁾라고 하고 있다.

한편, P. F. Secord와 C. W. Backman은 “우리들 各 個人은 自身에 대한 一連의 認知와 感情을 갖고 있으며, 이를 自我 또는 自我概念이라 한다”⁽¹²⁾고 규정짓고 한 個人이 自己 自身을 보는 態度에는 認知的, 情意的, 行動的 側面的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A. W. Combs와 D. Snygg는 自我概念을 定義하여 “自己 存在의 한 部分이며 特性이라고 생각하는 自己만의 獨特한 知覺”⁽¹³⁾이라고 하고 있으며, “어떤 自我概念은 다른 知覺보다 더 重要하고 우리 自身의 一部라고 보여지는 것이 있으며, 모든 自我概念은 그 銳利性 및 精密性에 差異가 있다”⁽¹⁴⁾는 두 가지 重要한 側面에 依하여 左右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學者들마다 自我概念을 解析하는 見解는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大部分의 퍼스널리티 理論에서 自我概念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고, 그 自我概念은 人格 形成에 있어서 가장 核心的인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構造의 하나라는 點에서는 모두 一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自我概念은 固有한 自身이며 同時에 世界와의 相互作用을 通하여 形成된 自身에 대한 知覺으로서, 바로 ‘自己’ 혹은 ‘自己의 것’ ‘나’하고 관련된 모든 知覺인 것이며, 한 個人이 自我概念을 形成할 때 비로소 그는 意味 있는 存在로 特定 社會의 構成員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知覺向性(Perceptual Orientation)이란 人間이 自身과 他人과 事物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內容의 傾向”⁽¹⁵⁾을 말한다. 向性이란 本性 및 本據地로 돌아가려는 傾性을 말하며 여기서는 人間의 行動가운데 주로 肯定的으로 知覺하느냐, 否定的으로 知覺하느냐 하는 傾向을 究明하려는 것으로 使用되고 있다.

이같은 概念은 그 理論의 根據를 이룬바 ‘第3勢力의 心理學’의 하나인 知覺心理學의 立場에 두고 있

(6) C. S. Hall & G. Lindzey,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57), p.468.

(7) W. James,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II (New York: Henry Holt & Co., 1890), p.188.

(8) A. W. Combs & D. Snygg, *Individual Behavior: A Perceptual Approach to Behavior* (Rev. ed.)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9), p.127에서 再引用

(9) C. R. Rogers,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51), pp.136-137.

(10) F. J. McDonald, *Educational Psychology*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59), p.464.

(11) W. W. Purkey, *The Self and Academic Achievement* (Florida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ouncil, Research Bulletin, 1967, 3(1)), p.3.

(12) P. F. Secord & C. W. Backman,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4), p.579.

(13) A. W. Combs & D. Snygg, *op. cit.*, pp.126-127.

(14) 崔正蕪, 知覺心理學(서울: 乙酉文化社, 1972), pp.92-93.

(15) 崔正蕪, “知覺向性檢査 標準化에 關한 研究” 延世論叢, 第9輯(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2), p.88.

는데, 知覺心理學에서는 人間의 行動을 行動하는 者의 即刻的인 自我, 他人 및 環境에 對한 主觀的 知覺에 依하여 左右된다고 생각한다. A. W. Combs 와 D. Snygg는 “모든 行動이란 例外없이 行動하는 者의 知覺의 場에 依하여 決定된다”(16)고 하여 特別히 남을 돕는 專門職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効率性を 높이는데 肯定的 知覺向性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勿論 人間은 恒常 肯定的 知覺만을, 혹은 否定的 知覺만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떤 人間의 性向이 흔히 肯定的이거나 否定的으로 作用하는 個 個人마다의 知覺特性은 있으리라는 假定은 充分히 首肯하는 일이며, 이것은 推理라는 方法을 通해서 外部世界에 人間 行動을 理解하는 信賴로운 資料로 活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理論의 背景下에서 R. H. Usher는 專門職 從事者들의 効率性を 左右하는 知覺向性의 次元을 自己, 他人, 그리고 自己職業을 보는 知覺에 各各 4가지의 基準을 設定하여 이의 客觀的인 把握이 可能함을 說明하고 있는데, 그 具體的인 12가지 次元(17)은 다음과 같다.

- a. 他人에 對한 知覺
 1. 有 能—無 能(able—unable)
 2. 價値있음—價値없음(worthy—unworthy)
 3. 內的過程—外的形成(internal process—externally molded)
 4. 依持可能—믿을수 없음(dependable—undependable)
- b. 自身에 對한 知覺
 1. 友好的一孤立的(with people—apart from people)
 2. 要求 됨—排斥 됨(wanted—unwanted)
 3. 價値있음—價値없음(worthy—unworthy)
 4. 有 能—無 能(able—unable)
- c. 自己職業에 對한 知覺
 1. 自由化—統制化(freeing—controlling)
 2. 擴 大—縮 小(larger—smaller)
 3. 意味中心—事實·事件中心(meanings oriented—facts, events oriented)
 4. 受 容—非受容(accepting—not accepting)

(16) A. W. Combs & D. Snygg. *op. cit.*, p. 20.

(17) 崔正薰, 前揭論文, pp. 89—91에서 再引用

(18) 鄭元植, 自我概念檢査(서울: 코리안 테스트 센터, 1979).

(19) 鄭元植, 自我概念 檢査 檢査法 要綱(서울: 코리안 테스트 센터, 1979), pp. 3—9.

3. 研究의 目的

本 研究의 具體的인 目的은 다음과 같다.

- 1) 大學生들의 學業成就度와 이들의 自我概念 및 知覺向性 要因과의 關係를 究明한다.
- 2) 大學에 있어서 한 特定 教科의 學業成就度와 이들의 全體 教科의 學業成就度인 總 坪量 平均과의 關係를 究明한다.

II. 研究方法

本 章에서는 本 研究에 使用된 모든 評價道具의 內容 및 構成原則과 調查對象 그리고 使用된 統計의 方法에 關하여 記述하였다. 評價道具中 特定한 教科에 對한 學業成就 檢査는 本 研究者들에 依하여 製作되었으며, 自我概念 檢査와 知覺向性 檢査는 標準化 檢査를 使用하였다.

1. 評價道具

1) 學業成就 檢査

本 學業成就 檢査는 1979學年度 第二學期에 서울 市內 Y大學校 教職課程에 開設되었던 “學校와 地域 社會”講座에서 다루었던 內容으로 構成 되었다.

本 學業成就 檢査에 포함된 問題들의 內容妥當度와 客觀度를 위하여 本 研究者들은 다음 몇가지 節次에 依하여 最終的인 問項을 選定하였다.

첫째, 各 問項은 具體的인 教育目標의 二元 分類表에 依하여 製作 되었다.

둘째, 學業成就 檢査의 客觀度를 考慮하여 全體 問項을 四選肢 選多型으로 하였다.

셋째, 學業成就 檢査의 內容妥當度와 信賴度를 높이기 위하여 問項數를 120個로 하였다.

2) 自我概念 檢査(18)

本 檢査는 標準化 檢査로서 네가지 下位要因으로 構成 되어 있으며 各 下位 要因의 特性과 本檢査의 妥當度와 信賴度를 보면 다음과 같다(19).

總 自我肯定 點數(Total Positive Self Score): 이 點數는 二 個人의 全體的인 自己 尊重感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 點數가 높은 사람은 自己 自身에 對하여 肯定的이며, 價値있고 보람있는 삶을 영

위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이 點數는 自我 同一性 點數, 自我受容, 自我行動, 身體的 自我, 道德的 自我, 性格的 自我, 家庭的 自我, 그리고 社會的 自我 等 8가지 下位點數로 나누어 진다.

總 自我變散性 點數(Total Variability Score): 이 點數는 그 個人의 自我概念의 恒常性を 意味한다. 이 點數가 높으면 그 사람의 自我概念의 恒常性이 缺如되고 統一과 統合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點數는 內的 變散點數와 外的 變散點數로 나누어 진다.

分布點數(Distribution Score): 이 點數가 높으면 그 個人은 自己 自身에 대하여 한 말이 確實하고 自己의 意思가 分명한 것이며, 反對로 낮으면 自己陳述의 모호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自己 防禦의이더, 경계심이 많은 自我概念을 所有했다고 말할 수 있다.

自我評價 點數(Self-Criticism): 이 點數는 10個의 問項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一般的으로 이 點數가 높으면 自己批判을 할 수 있는 正常的이며 健全한 사람이며, 反對로 낮으면 個人의 防禦의인 特性을 나타내는 것이다.

本 檢査의 理論的 妥當度는 自我概念 理論家들이 分類한 自我準據 體制를 그대로 使用하였으므로 그 妥當性을 認定받을 수 있으며 또한 臨床 心理學者들이 各 問項의 選擇에 充分한 合意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問項 自體의 妥當性도 認定될 수 있는 檢査이다. 本 檢査의 再 檢査 信賴度 係數는 .55~.90으로 나타났다.

3) 知覺向性 檢査⁽²⁰⁾

本 檢査는 標準化 檢査로서, 知覺向性(Perceptual Orientation)이란 人間이 自身과 他人과 事物에 對하여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本性 및 本據地로 돌아가려는 傾向을 말하며 여기서는 人同의 行動 가운데, 主로 肯定的으로 知覺하느냐 否定的으로 知覺하느냐 하는 傾向을 究明하려는 것이다.

本 檢査는 自我에 關한 知覺과 他人에 關한 知覺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이 點數가 높으면 被檢者는 他人을 主로 有能하다, 價値가 있다, 內的 過程을 重視한다, 그 사람은 믿을만 하다고 보며, 또한 自己 自身에 關해서도 나는 友好的이다, 他人에게 必要한 存在다, 나는 이 社會에 價値가 있는 存在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反面에 이 點數가 낮으면, 他人이란 별로 能力이 없다고 보며 價値가 없는 存在이며 外部의 힘에 依하여 形成되어 있으며 의지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自身에 對해서도 自己는 他人과 孤立되어 있고 외롭고 배척 당하고 있으며, 별로 價値가 없고 또한 無能하다고 한다고 解釋할 수 있다. 本 檢査의 再 檢査 信賴度 係數⁽²¹⁾는 .88이었다.

4) 大學 總 學點 平均點數

大學 總 學點 平均點數(GPA)는 大學生들의 大學 成績을 科目別로 A, B, C, D의 評語로 매겨진 것이 各 各 4, 3, 2, 1의 數值를 賦與하여 履修科目의 總 學點數로 나눈 것이다. 本 研究에서는 調査 對象者 學生들의 各 學年別 大學 學點 平均點數와 大學 2年間의 履修한 總 學點 平均點數를 使用하였다.

2. 調査對象

本 研究의 調査對象은 Y大學校 敎職課程에서 開設된 “學校와 地域社會” 講座를 受講한 3學年 學生들로서, 이들을 性別과 專攻 分野別로 보면 <表-1>과 같다.

<表-1> 性別 및 專攻 分野別 調査對象者數

	全體	男子	女子	文科系	理科系	藝能體系
事例數	190	78	112	46	85	59
%	100.0	41.1	58.9	24.2	44.7	31.1

3. 統計의 方法

本 研究에서 실시된 檢査의 結果 分析을 위하여 使用된 主要 統計의 方法은 다음과 같다.

1) 本 學業成就 檢査의 結果와 自我概念 및 知覺向性 檢査 結果 間의 相關關係를 把握하기 위하여 K. Pearson의 積率 相關係數를 算出하였다.

2) 男·女別, 專攻 分野別 集團의 諸 檢査 結果 間의 差異檢證을 위하여 t-檢證方法과 變量分析(A-NOVA)의 方法을 使用하였다.

4. 몇가지 制限點

本 論文이 갖고 있는 制限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 本 研究에서 調査 對象者를 標集하는 過程에서 標集의 最小單位를 한 講座의 受講生 集團으로

(20) 崔正蕪, 知覺向性檢査(서울: 延世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1).

(21) 沈致善, 崔正蕪, “知覺向性檢査 學生用 標準化에 關한 研究” 延世 敎育科學 第16輯(서울: 延世大學校 敎育大學院, 1979), pp. 9-21.

로 하였기 때문에 研究에서 必要한 調查 對象者들의 性別과 專攻 分野를 充分히 考慮하지 못하였다.

둘째, 本 研究에서는 特定한 한 教科의 學業 成就 度만을 그 準據變因으로 하였으므로, 本 研究의 結果를 一般化하는데에는 限界가 있다.

그리고 總 學點 平均點數와의 相關關係를 分析하였다. 그리고 大學校의 學點 平均點數의 一貫性 혹은 安全性을 把握하기 위하여 各學年 學點 平均點數 間의 相關關係를 알아 보았다. 本章에서 發見된 몇가지 主要한 結果에 關한 具體的인 解釋과 論議는 다음 IV章에서 하였다.

III. 結果 分析

本章에서는 한 教科에 對한 學生들의 學業 成就 度와 이들의 自我概念 檢査, 知覺向性 檢査의 結果

1. 學業成就 檢査와 自我概念 檢査의 結果

學業成就 檢査와 自我概念 檢査 結果 間의 相關關係는 <表 -2>와 같다.

<表 -2> 學業成就 檢査와 自我概念 檢査 結果 間의 相關關係

區分	全體 N=167	男子 N=62	女子 N=105	文科系 N=42	理科系 N=82	藝體能系 N=43
自我概念檢査						
總 自我肯定 點數	-.07	-.08	.01	.05	-.11	.10
總 自我變散 點數	-.16*	-.16	-.14	-.11	-.04	-.24
分 布 點 數	-.13	-.13	-.01	-.09	.03	-.10
自我評價點數	-.05	-.03	-.01	-.01	.04	-.01

* P < .05

全體集團에서 自我概念 檢査의 下位 要因인 「總 自我變散」의 點數와 學業成就 檢査 結果 間에서 統計的으로 有意한 負的 相關關係를 보였다.

그리고 自我概念 檢査의 結果를 性別과 專攻 分野 別로 보면 <表-3>과 <表-4>와 같다.

<表 -3> 男·女別 自我概念 檢査의 結果

	男子 N=62		女子 N=105		平均值間 의 差異 檢證(t- 검증)
	M	SD	M	SD	
總自我肯定點數	321.9	30.9	314.6	25.1	1.59
總變散點數	39.7	10.5	38.8	8.9	.59
分布點數	96.1	27.1	86.7	20.7	2.35*
自我評價點數	32.3	4.6	31.4	4.1	1.20

*P < .05

<表 -4> 專攻 分野別 自我概念 檢査의 結果

	文科系 N=42		理科系 N=82		藝體能系 N=43	
	M	SD	M	SD	M	SD
總自我肯定點數	314.9	27.1	316.6	28.5	321.7	26.2
總變散點數	37.5	8.6	39.2	9.3	40.6	10.6
分布點數	84.4	23.0	90.7	20.9	95.5	27.9
自我評價點數	31.6	4.4	31.6	4.3	32.5	4.6

<表 -5> 專攻 分野別 自我概念 檢査 結果의 變量分析

	變 量 源	自 由 度	平均自乘和	F	P
總 自我肯定 點數	集 團 間	2	557.3	.73	P > .05
	集 團 內	164	760.9		
總 變 散 點 數	集 團 間	2	102.5	1.14	P > .05
	集 團 內	164	89.9		
分 布 點 數	集 團 間	2	1,308.5	2.38	P > .05
	集 團 內	164	550.0		
自 我 評 價 點 數	集 團 間	2	11.9	.62	P > .05
	集 團 內	164	19.2		

自我概念 檢査의 結果에 있어서는 「分布點數」의

下位要因에서 男·女 集團 間에 統計的으로 有意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專攻分野別集團間에는 統計的으로 有意한 差異를 보이지 않았다.

2. 學業成就 檢査와 知覺向性 檢査의 結果

學業成就 檢査와 知覺向性 檢査 結果 間의 相關關係는 <表-6>과 같다.

知覺向性 檢査와 學業成就 檢査 結果와의 相關係數는 全體集團에서는 「自身에 對한 知覺」에서, 女子集團에서는 「自身에 對한 知覺」과 「總點」에서 統計的으로 有意한 相關係數를 보였다.

그리고 知覺向性 檢査의 結果를 性別과 專攻分野別로 보면 <表-7>과 <表-8>과 같다.

<表-6> 學業成就 檢査와 知覺向性 檢査 結果 間의 相關關係

區分	全體 N=165	男子 N=62	女子 N=103	文科系 N=45	理科系 N=80	藝體能系 N=40
知覺向上檢査						
自身에 對한 知覺	.16*	.00	.31**	-.02	.18	.14
他人에 對한 知覺	.00	.00	.12	.02	-.04	.14
總 點	.08	.00	.24*	.00	.06	.15

*P<.05 **P<.01

<表-7> 男·女別 知覺向性 檢査의 結果

	男子 N=62		女子 N=103		平均值間의 差異檢證 (t-검증)
	M	SD	M	SD	
自身에 對한 知覺	71.6	7.3	71.2	7.2	.37
他人에 對한 知覺	79.5	9.3	75.8	9.3	2.48*
總 點	151.1	14.5	146.9	14.3	1.78

*P<.05

<表-8> 專攻分野別 知覺向性 檢査의 結果

	文科系 N=45		理科系 N=80		藝體能系 N=40	
	M	SD	M	SD	M	SD
自身에 對한 知覺	71.9	7.2	71.8	6.0	69.9	9.1
他人에 對한 知覺	77.6	8.1	76.7	9.1	78.0	11.5
總 點	149.5	12.9	148.5	12.5	147.9	19.2

<表-9> 專攻分野別 知覺向性 檢査 結果의 變量分析

	變量源	自由度	平均自乘和	F	P
自身에 對한 知覺	集團間	2	53.3	1.02	P>.05
	集團內	162	52.1		
他人에 對한 知覺	集團間	2	28.0	0.31	P>.05
	集團內	162	89.8		
總 點	集團間	2	28.1	0.13	P>.05
	集團內	162	210.9		

知覺向性 檢査의 結果에 있어서는 「他人에 對한 知覺」에서만 男·女集團 間에 統計的으로 有意한 差異를 보였다. 專攻分野別集團間에는 有意한 差異를 보이지 않았다.

3. 學業成就 檢査와 總 學點 平均點數

먼저 大學校 成績의 一貫性의 程度를 究明하기 爲하여 各學年別 大學 學點 平均點數의 相關係數를 보면 <表-10>과 같다.

學生들의 各學年 間의 學點 平均點數의 相關關係는 專攻分野別에 있어서는 集團 間에 若干의 差異를 보이고 있으나 全般的으로 比較的 높았다.

<表-10> 各學年 間의 學點 平均點數의 相關關係

	全體	2學年		文科系	理科系	藝體能系
		男子	女子			
1學年	.77**	.72**	.75**	.60**	.72**	.63**
N	178	74	104	42	79	57

**P<.01

다음으로 學業成就 檢査點數와 大學 學點 平均點數 間의 相關關係를 보면 <表-11>과 같다.

全體集團에서는 學業成就 檢査의 結果와 各學年別 大學 學點 平均點數 및 大學 總 學點 平均點數 間

〈表-11〉 學業成就 檢査點數와 大學學點 平均點數 間的 相關關係

	全 體	男 子	女 子	文 科 系	理 科 系	藝 體 能 系
1 학 년 GPA	.56**	.38**	.57**	.37*	.45**	.35**
2 학 년 GPA	.57**	.47**	.54**	.17	.44**	.44**
총 GPA	.62**	.50**	.60**	.33*	.52*	.37**

*P<.05 **P<.01

의 相關係數는 統計的으로 意義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專攻別의 경우 文科系 集團에서는 2學年 大學 學點 平均點數와 學業成就度와는 統計的으로 有意한 相關係數를 보이지 않았다.

Ⅳ. 論 議

本 章에서는 第Ⅲ章에서 밝혀진 몇가지 主要한 事實에 對하여 그 間에 이루어졌던 여러 實證的인 研究의 結果와 比較하여 함으로써 本 研究結果에 對하여 論議하였다.

本 章에서 論議된 主要內容은 첫째, 學業成就 檢査 結果와 自我概念 및 知覺向性 檢査 結果와의 相關關係, 둘째, 學業 成就 檢査의 結果와 大學 總 學點 平均點數와의 相關關係에 關한 것이다.

1. 學業成就 檢査와 自我概念 및 知覺向性 檢査의 結果

自我概念 檢査의 結果에서 各 專攻集團 間에서는 아무런 差異를 보여 주지 않았으나, 男·女 集團의 比較에서는 女子 大學生들이 男子 大學生들 보다 自己 防禦的이며 警戒心이 많은 自我概念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아직도 傳統的인 文化圈에서 完全히 脫皮 하지 못한 우리 社會에 있어서 家庭의 保守性이나 女性들의 制限된 社會的 活動 및 地位 그리고 그들의 役割 等を 考慮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結果로 보인다.

R.W. Motta와 J.R. Vane도 “女子들에게 있어

社會化 過程은 傳統的으로 規定된 女性役割의 保守的인 面과 柔順, 服從等과 같은 消極的인 性格特性을 強化시키며, 傳統的으로 男性的인 特性으로 規定된 個人의 性質인 自己主張, 成就志向, 獨立性等을 弱화시키는 傾向이 있다”⁽²²⁾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本 研究의 結果에서는 大學生들이 가지고 있는 自己 自身의 身體事項, 家族事項, 性格的인 面, 道德的인 觀念 그리고 對人關係의 外的 側面에 對한 自我概念은 이들의 學業 成就도에 아무런 影響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學生들의 大學 總 學點 平均點數와도 같은 結果를 보이고 있어 大學에서 學生들의 知的 領域과 本 自我概念 檢査에서 評價되는 情意的인 要因과는 相互 獨立的인 變因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實證的인 研究에서 나타난 結果를 보아도 이 두 變因 間的 相關關係에 對하여 相互 相反된 結果를 보이고 있다.

外國의 경우 國民學校 學生을 對象으로 한 W. W. Wattenberg와 C. Clifford의 研究⁽²³⁾, 그리고 J.H. Williams의 研究⁽²⁴⁾와 大學生을 對象으로 한 W.L. Albott와 J.N. Haney의 研究⁽²⁵⁾에서는 두 變因 間에 意義있는 相關係數를 發見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高等學校 學生을 對象으로 이들의 自我概念과 知能 間的 研究⁽²⁶⁾와 大學生들의 大學入學 豫備考査 成績과 自我概念 間的 研究⁽²⁷⁾에서도 두 變因 間에는 아무런 相關關係가 없었다.

反面 國民學校 學生을 對象으로 한 F.W. Black

(22) R. M. Motta & J. R. Vane, "An Investigation of Teacher Perceptions of Sex Typed Behavior,"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69, No.10, July-August, 1976, pp.363-368.
 (23) W. W. Wattenberg & C. Clifford, "Relation of Self-Concepts to Beginning Achievement in Reading," *Child Development*, Vol.35, June, 1964, pp.461-467.
 (24) J. H. Williams, "The Relationship of Self-Concept and Reading Achievement in First-Grade Childre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66, No.8, April, 1973, pp.378-381.
 (25) W. L. Albott & J.N. Haney, "Self-Concept, Choice of Study Plan and Performance in an Introductory Psychology Cours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65, No.8, April, 1972, pp.339-342.
 (26) 孫東翼, 工高生의 自我概念과 知能指數에 關한 研究(未刊行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1978. 2).
 (27) 陳時華, 女大生의 自我概念과 能力水準의 關係에 關한 一研究(未刊行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1977. 8).

(28)와 J. Bledsoe의 연구(29)와 中學生을 對象으로 한 D. B. Campbell의 연구(30)에서는 두 變因 間에 意義있는 相關係數를 보였다. 以上の 結果에서 보면 自我概念과 學業 成就度 間의 相關係數의 結果는 檢査의 內容이나 研究集團의 特性에 따라 많은 差異를 차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本 研究에서도 自我概念 檢査와 同一 種類인 知覺向性 檢査(31)의 下位要因과 學業 成就度 間에는 意義있는 相關關係를 보였다. 即 女子集團의 경우 自己가 他人과의 關係속에서 매우 友好的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要求되는 價値있는 存在이며, 그리고 매우 有能하다고 自己自身을 知覺하는 「自身에 對한 知覺」이 높은 學生들이 그렇지 못한 學生들 보다 學業 成就도가 매우 意義있는 水準(1%水準)에서 높았다. 이는 本 研究에서 使用되었던 自我概念 檢査와 知覺向性 檢査의 各 下位要因 間의 相關關係(.04~.32)가 比較의 낮아 두 檢査의 內容의 異質性에서 오는 結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全體의 으로 自我概念 檢査보다는 知覺向性 檢査에 學習能力과 關聯되어 생각할 수 있는 自己 自身の 能力에 對한 問項들이 全體 問項에서 占有하는 比率이 큰 데에 起因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自己 自身에 對한 知覺에서 男女集團 間에 아무런 差異를 보이지 않았으나 女子集團에서만 두 變因 間의 相關關係가 높았던 것은 一般的으로 女學生들이 自己의 價値나 自己의 能力에 對한 主基準을 知的 側面인 學業 成就도에 두고 있는 反面, 男學生들은 知的 側面인 學業 成就도를 크게 考慮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即 大學에서 男學生들에 比하여 對人關係나 여러 社會的 活動의 制限을 받는 女學生들은 自己의 價値나 能力을 다른 分野에서 試驗해 볼 機會가 比較的 적으므로 自我에 對한 知覺의 基準으로 大學에 있어서의 自身의 知的 能力에 가장 큰 比重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男學生

들의 경우에는 自己 自身の 價値나 能力의 基準을 知的 能力 以外에 幅넓은 社會的 活動에 있어서의 役割遂行이나 對人關係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側面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全體集團에서 學業 成就도와 自身에 對한 知覺과 統計的으로 有意한 相關關係를 보인것은 本 研究의 調查 對象者 中 女學生이 많은데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知覺向性 檢査의 結果에서 全般的으로 自己自身에 對한 知覺보다는 他人에 對한 知覺이 높았으며, 男子集團이 女子集團보다 他人에 對한 知覺이 높았다. 이는 다른 方向에서의 繼續的인 研究로 究明할 必要가 있는 問題이다.

以上에서 살펴본 自我概念과 學業 成就度 間의 相關關係에 關한 研究結果와 本 研究의 結果를 綜合하여 보면 두 變因 間의 相關關係는 檢査의 內容에 따라 相異한 結果를 보이고 있으나 두 變因을 完全한 獨立變因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點에 대하여 R. L. Kohr은 그 間의 많은 實證的인 研究를 綜合, 分析하면서 “自我概念과 學業 成就度 間에 統計的으로 意義있는 相關關係가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그 方向이나 程度에서 實際的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究明되지 않았다”(32)고 指摘하고 있다. 이러한 自我概念의 重要性에 對하여 B. S. Bloom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學業의 自我概念은 그것 自體로서 重要的 意義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個人을 自由롭게 내 버려 두었을 때 學業的 學習에 스스로 從事할 것인가 어떤가를 決定하는 일체의 役割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學業的 自我概念이 낮으면 이것이 한 個人으로 하여금 一般的으로 否定的 自我概念을 갖게 할 確率이 크다는 것이다.”(33)

그리고 知能을 人間의 効率的인 行動을 할 수 있는 能力으로 본다면 “人間의 知能도 어떤 주어진 순간에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知覺의 豐富성과 多樣

(28) F. W. Black, "Self-Concept as Related to Achievement and Age in Learning-Disabl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 45, Dec., 1974, pp. 1137-1140.

(29) J. Bledsoe, "Self-Concept of Children and Their Intelligence, Achievement, Interests and Anxiety." *Childhood Education*, Vol. 43, March, 1967, pp. 436-483.

(30) D. B. Campbell,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Grade Public School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Vol. 37, Winter, 1964, pp. 271-278.

(31) 本 學生用 知覺向性 檢査에서 自己 自身에 對한 知覺은 「友好의—獨立的」, 「要求됨—排斥됨」, 「價値있음—價値없음」 그리고 「有能—無能」의 次元에서 自身에 對한 知覺을 意味하며, 他人에 對한 知覺은 「有能—無能」, 「價値있음—價値없음」, 「內的過程—外的形成」, 그리고 「依持可能—일단 수 없음」의 次元에서 他人을 보는 知覺이다. 沈致濤·崔正謙, 前揭書, p. 11.

(32) C. M. Rogers, M. D. Smith & J. M. Coleman, "Social Comparison in the Classroom: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0, No. 1, 1978, p. 50. 에서 再引用

(33) 黃鶴奎譯, 教育革新(서울:培英社, 1974), p. 144에서 再引用

性에 달려있다⁽³⁴⁾는 知覺 心理學의 立場에서 볼 때, 學生들의 自我概念이나 知覺向性은 學生들의 學業 成就度를 向上시키는데 必要한 要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學業成就 檢査와 大學 總 學點 平均點數

各 學年 間의 大學學點 平均點數의 相關係數는 男·女集團과 各 專攻別 集團에 따라 若干의 差異를 보였으나, 全般的으로 1,2學年 間에 있어서 大學學點 平均點數 分布上의 學生들의 優劣의 相對的 位置는 比較의 一貫性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研究報告書에 依하면 同一 學科에서의 學年別 學點 平均點數 間의 相關係數는 比較的 높았으며 隔學年 時보다 直接 接續學年 時 그리고 低學年 間 보다는 高學年 間의 相關係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⁵⁾

이와같이 各 學年 間의 大學學點 平均點數의 安全性의 問題는 그것이 한 獨立變因으로서 높은 豫言的 機能을 가지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標準要因으로서의 信賴性의 程度를 指示해 준다. 이런 點에서 볼 때, 大學의 學點 平均點數는 大學에 있어서 學生들의 學業 成就度를 反映하는 信賴로운 尺度로 볼 수 있다.

本 研究에서는 한 科과에 대한 學生들의 學業 成就度와 이들의 大學 總 學點 平均點數 間의 相關係數는 性別 및 專攻 分野別에 따라 어느 程度 差異가 있었으나 全體集團에서는 .62로서, 이는 그렇게 滿足할 만한 相關係數는 아니었다.

外國의 경우 L.M. Aleamoni의 研究에 依하면 學生들의 總 學點 平均點數와 한 教科의 學點點數 間의 相關係數는 .82~.86의 範圍로 比較的 높았으며⁽³⁶⁾, M.C. Holen과 C. R. Newhouse의 研究에서는 .52로 나타났다.⁽³⁷⁾ 이러한 點에 비추어 볼 때, 두 變因 間의 相關係數는 研究에 따라 어느 程度의 差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大學에서의 大學生들의 學點 點數는 한 教科目을 擔當하는 教授의 特性, 教科目的 特性, 學生集團의 性

格 그리고 學級의 크기 등, 여러 變因에 依하여 影響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本 研究에서 文科系 集團의 경우, 各 行動領域別 學業 成就度와 大學 總 學點 平均點數와의 相關關係가 오히려 統計的으로 意義가 없었던 것은 이들의 專攻變因에 起因되는 것인지는 分明히 究明할 수 없으나 大體로 다음 두가지 集團의 特性에서 그 理由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學生들의 學業 成就度와 大學 總 學點 平均點數 間의 낮은 相關係數는 文科系 集團에 標集된 學生들이 10個의 專攻學科로 分布된 데서 오는 結果로 볼 수 있다. 大學에서 學點 點數의 評價는 專攻 分野와 그 教科目的 特性에 따라 評價基準이 다를 可能性이 크므로 文科系 集團은 他 專攻集團에 比하여 學點點數의 評價基準의 一貫性이 弱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大學의 學點 平均點數에 對하여 R.D. Goldman과 B.N. Hewitt는 “一般的으로 專攻分野의 教科目에서는 우수한 學生集團보다 劣等한 學生集團에서 學生 平均點數가 높은 傾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大學의 學點 平均點數의 弱點은 여러 教科目에서의 相異한 標準에 依하여 이루어 진다는데 있다”⁽³⁸⁾고 하였다.

둘째로, 學生들의 學業 成就度와 大學學點 平均點數 間의 낮은 相關係數는 文科系 集團이 他 集團보다 同質的인 集團일 뿐만 아니라, 能力水準에서도 높았다는 點에 起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一般的으로 集團의 同質性의 程度의 問題는 各 個人 間의 相關係數가 낮아질 可能性이 크다고 보겠다.

이 點에 對하여 J.C. Nunnally는 “本來 相關係數란 從屬變因의 變量을 意味하는 하나의 함수이다. 따라서 研究對象의 能力의 범위가 적으면 감소하는 傾向이 있다⁽³⁹⁾”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集團의 能力水準과 相關係數에 對하여 A. Anastasi는 “一般的으로 集團의 能力의 平均이 높을수록 두 變因 間의 相關係數는 減少되는 傾向이 있다⁽⁴⁰⁾”고 하였다.

(34) 崔正薰, 前揭書, pp.181-182.

(35)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大學單位 學生募集에 따르는 學科選定の 指導와 結果에 對한 研究(서울: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1977), pp.29-30.

(36) L. M. Aleamoni, Can Grade Point Average be More Accurately Predicted?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69, No.3, 1977, p.229.

(37) M. C. Holen & R. C. Newhouse, “Student Self-Prediction of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69, No.6, Feb., 1976, pp.219-220.

(38) R.D. Goldman & B.N. Hewitt, “Adaptation-Level as an Explanation for Differential Standards in College Grading.”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Vol.2, 1975, pp.149-161.

(39) J. C. Nunnally,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7), p.126.

(40) A. Anastasi, *Psychological Testing* (4th ed.) (New York:McMillan Publishing Co., 1976), p.127.

그리고 本 學業成就 檢査의 結果와 各 學年別 大學 學點 平均點數 間의 相關係數 보다 學業 成就度 와 累積된 總 學點 平均點數와의 相關係數가 全般的 으로 더 높았다. 이는 大學에 있어서 學生들의 學業 成就度를 代表하는 學點 平均點數의 妥當性이 높을 수록 大學에서 한 教科目的 學業 成就度를 豫言하는 데 있어서 累積된 總 學點 平均點數가 보다 信賴로운 準據가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點에 對하여 E. E. Ghiselli는 “하나의 學點보다는 學生들의 學業 成就度를 代表하는 여러 學點의 數가 增加 할수록 獨立變因으로서의 學點 平均點數는 基準變因에 對하여 더 信賴로운 豫言을 할 수 있다”(41)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結果는 L. M. Aleamoni의 實證的인 研究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42)

反面에 이러한 大學의 學點 平均點數에 對한 批判으로서 R. W. Covert는 “大學校의 總 學點 平均點數는 大學院의 總 學點 平均點數의 變量의 20% 以上을 豫言하지 못하고 있다”(43)고 말하고 있으며 R. D. Goldman과 R. E. Slaughter는 “高等學校의 成績과 學業適性 檢査의 結果는 大學校의 總 學點 平均點數 보다 오히려 한 教科目的 學業 成就度를 더 豫言해 주고 있다”(44)고指摘하고 있다. 이는 바로 大學에서의 學業 成就度の 可變性을 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 Levine과 J. Weingart는 學業 成就度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批判하고 있다.

“모든 大學에 있어서 一般的인 傾向은 한 教科에 對한 學點點數가 漸次로 높아지고 있다. 事實이다. ...그 例로서 Yale大學의 경우 B學點 以上이 1963年 가을 學期에는 59%이었던 것이 1967年 봄 學期에는 71%로 높아졌으며, Brandies大學의 경우에는 1964年 부터 1965年 間의 學點 平均點數가 2.81이었던 것이 1969年 부터 1970年 間에는 3.17로 나타났다. ... 이러한 學點點數의 增長으로 學點 平均點數는 그 辨別力에 있어서 곧 無用物이 될 것이다.”(4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大學에 있어서 學生들의 總 學點 平均點數는 學生들의 大學教育의 成功與否를

判斷하는 가장 重要한 하나의 準據가 된다는 點에서, 各 專攻分野와 教科目的 特性에 따라 評價基準이 다르다 할지라도 一律적으로 適用 可能한 信賴로운 評價基準의 制度의 補完이 있어야 할 것이다.

V. 結 論

教育은 人間의 行動을 變化시키는 하나의 過程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教育의 過程을 通하여 變化된 知的 行動과 이들의 情意的 要因인 여러 變因과의 關係를 分析的으로 評價하는 일은 보다 効率的인 教授方法의 摸索이나 學生指導를 위하여 教育에 중사하는 모든 教育 專門家들에게 주어질 重要한 課題中的 하나이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教育課程의 中核의 目標인 學生들의 學業 成就度와 이들의 情意的 側面인 自我概念 및 知覺向性과의 關係를 分析하고, 그리고 大學에서의 한 教科에 對한 學業 成就度와 大學의 總 學點 平均點數와의 相關關係를 分析하였다.

本 研究에서 밝혀진 結果에 대하여 보던 學生들의 한 教科에 대한 學業 成就度와 이들의 自我概念과 知覺向性要因과의 相關係數는 統計的으로 意義가 없었다. 即 學生들의 自我概念이나 知覺向性 등은 이들의 學業 成就度를 거의 豫言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女子集團의 경우 學業 成就度와 知覺向性의 下位要因인 ‘自身에 對한 知覺’과 統計的으로 매우 意義있는 相關係數를 보여주고 있어, 學業 成就度에 影響을 미치는 情意的인 變因에 있어서 男·女 學生集團 間에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大學의 總 學點 平均點數는 大學에 있어서 한 教科에 對한 學業 成就度の 變量의 約 62%만을 豫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大學에 있어서 學生들의 各 教科에 對한 學點의 可變性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大學에 있어서 한 教科에 대한 學業 成就度에는 他 教科에 對한 知的 能力(知識) 以外的 다른 많은 情意的 變因이 크게 影響을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1) E. E. Ghiselli, *Theory of Psychological Measurement* (New York: McGraw Hill Co., 1964), p.196.

(42) L. M. Aleamoni, *op. cit.*, 227-230.

(43) R. W. Covert, “The Moderative Effect of Undergraduate Grade Point Average on the Prediction Success in Graduate Educ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35, No. 4, Winter, 1975, pp. 947-950.

(44) R. D. Goldman & R. E. Slaughter, “Why College Grade Point Average is Difficult to Predic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68, No. 1, 1976, pp. 9-14.

(45) A. Levine & J. Weingart, *Reform of Undergraduate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4), p. 112.

그러나 本 研究에서 究明할 수 없었던 學業 成就 度에 影響을 미치는 다른 情意的 變因에 對해서는 다른 方向에서 研究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學生들의 大學教育의 성공 與否를 判斷하는 主要한 基準이며, 卒業後의 就業決定 過程에서도 第一次의인 準據가 바로 學業 成就度라는 點에서 볼 때, 大學生들의 學業 成就度에 對한 評價는 各 專攻分野와 教科의 內容이 다르다 할지라도 一律의 으로 適用 可能한 範圍內에서 보다 타당하고 客觀 的인 多樣한 評價基準에 依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 이다.

參 考 文 獻

- 沈致善·崔正薰, “知覺向性 檢査 學生用 標準化에 關한 研究” *延世 教育科學*, 第16輯,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1979.
- 孫東翼, *工高生의 自我概念과 知能指數에 關한 研究*, 未刊行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1978.
- 鄭元植, *自我概念 檢査, 檢査法 要綱*, 서울: 코리안 테스트 센터, 1979.
- 陳時華, *女大生의 自我概念과 能力水準의 關係에 關한 一概要*, 未刊行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1977.
- 崔正薰, *知覺心理學*, 서울: 乙酉文化社, 1972.
- . “知覺向性檢査 標準化에 關한 研究” *延世論叢*, 第9輯, 延世大學校 大學院, 1972.
- 黃禎奎譯, *教育革新*, 서울: 培英社, 1974.
- Albott, W.L. & Haney, J.N. “Self-Concept, Choice of Study Plan and Performance in an Introductory Psychology Cours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65, No.8, April, 1972, pp.339—342.
- Aleamoni, L.M. “Can Grade Point Average be More Accurately Predicted?”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69, No. 3, 1977, pp.227—230.
- Anastasi, A. *Psychological Testing*(4th ed.). New York: McMillan Publishing Co., 1976.
- Baron, D. & Bernard, H.W. *Evaluation Techniques for Classroom Teacher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58.
- Black, F.W. “Self-Concept as Related to Achievement and Age in Learning-Disabl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45, Dec., 1974, pp.1137—1140.
- Bledsoe, J. “Self-Concept of Children and Their Intelligence, Achievement, Interests and Anxiety.” *Childhood Education*. Vol.43, Mar., 1967, pp.436—483.
- Campbell, D. B.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Grade Public School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Vol. 37, Winter, 1964, pp.271—278.
- Combs, A.W. & Snygg, D. *Individual Behavior: A Perceptual Approach to Behavior* (Rev. ed.).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9.
- Covert, R.W. “The Moderative Effect of Undergraduate Grade Point Average on the Prediction Success in Graduate Educ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35, No.4, Winter, 1975, pp.947—950.
- Ghiselli, E.E. *Theory of Psychological Measurement*. New York: McGraw Hill Co., 1964.
- Goldman, R.D. & Hewitt, B.N. “Adaptation-Level as an Explanation for Differential Standards in College Grading.”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Vol.2, 1975, pp. 149—161.
- Goldman, R.D. & Slaughter, R.E. “Why College Grade Point Average is Difficult to Predic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68, No.1, 1976, pp.9—14.
- Hall, C.S. & Lindzey, G.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57.
- Holen, M.C. & Newhouse, R.C. “Student Self-Prediction of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69, No.6, Feb., 1976, pp.219—220.
- James, W.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II. New York: Henry Holt & Co., 1890.
- Levine, A. & Weingart, J. *Reform of Undergraduate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

- Bass Publishers, 1974.
- McDonald, F. J. *Educational Psychology*.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59.
- Miller, R.I. *Evaluating Faculty Performanc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4.
- Motta, R. W. & Vane, J. R. "An Investigation of Teacher Perceptions of Sex Typed Behavior."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69, No.10, July/August, 1976, pp.363—368.
- Niblett, W.R.(ed.). *Higher Education: Demand and Response*. London: Taristock Publishers, 1969.
- Nunnally, J.C.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67.
- Pace, C.R. (ed.). *Evaluating Learning and Teaching*.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3.
- Purkey, W.W. *The Self and Academic Achievement*. Florida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ouncil, Research Bulletin 3 (1), 1967.
- Rogers, C.M., Smith, M.D. & Coleman, J.M. "Social Comparison in the Classroom: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70, No.1, 1978, pp. 50—57.
- Rogers, C.R.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51.
- Secord, P. F. & Backman, C.W.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4.
- Travers, R.M. W.(ed.). *Secon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Chicago: Rand McNally & Company, 1973.
- Wattenberg, W.W. & Clifford, C. "Relation of Self-Concept to Beginning Achievement in Reading." *Child Development*. Vol.35, June, 1964, pp.461—467.
- Williams, J.B. "The Relationship of Self-Concept and Reading Achievement in First-Grade Childre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66, No.8, April, 1973, pp.378—381.